

GRACE 선교소식

2025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양곡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지난 주간에는 충남 당진에서 홍수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집회를 인도했고, 이번 주는 창원에서 무더위 속에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은혜가 넘치는 '이열치열'의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창원 양곡교회는 창립 110주년을 맞은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43년 전, 지용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만 해도 100여 명이 모이는 시골 교회였으나, 지금은 5천 석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고 큰 부흥을 이루어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참석하며, 이번 성회는 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이 홍수와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곡교회 집회를 마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도림교회에서 주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곧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GTD 1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집회로 육신은 다소 힘들지만, 특히 한국의 저녁 집회 시간은 미국에서는 한밤중이기에 시차로 인해 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도림교회 부흥성회: 7/25-7/27
- 필리핀 TD 1기: 7/28-8/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는 부흥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림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4부 예배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주일 저녁에는 필리핀 클락으로 출발해 GTD 1기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후, GMI 은혜교회 금요성령집회를 인도하고, 토요일에 귀국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현재 이곳은 초, 중학교를 건축 중에 있으며 저희 AFMEM 중보기도 팀의 성도님들의 기도



와 재정후원으로 멈추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장마가 끝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공사하기에 최적의 상황 속에 거푸집 공사와 철근조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주말쯤에는 철근조립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주 초까지는 슬라브 재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위해 계속 건축재정을 공급해 주시며 도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사랑의 빛교회가 이번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이름을 [카잔은혜교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타타르스탄과 전 구소련지역의 1000개 교회 개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소련GMI의 10,000개 교회개척 비전 중, 십일조를 감당하는 교회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예에 초청되어 교회에 왔던 남미(페루, 볼리비아) 유학생 5명이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러시아어로 성경읽기를 함께 시작하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으로 온 성실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새 생명을 얻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로, 비전을 가진 자들로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교회 건물과 부지 구입, 수리,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임대하여 사용하던 교회 건물 구입을 준비하다가 코로나와 러우전쟁으로 멈춰있었는데 드디어 다시 시작합니다. 이곳을 타타르스탄과 주변 7개 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불가지역에 중심 센터로 이 곳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목조건물이 60년되었는데 아직은 10년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리해서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로 허가 받은 벽돌건물은 차고를 작은 교육관으로 수리,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공터 부지에 본격적인 예배당 건축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과 부지 구입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집 주인분들의 배려로 우선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사용하며 수리하고 매달 건물과 부지 재정에 일정 부분을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과 수리를 위해 함께 섬겨 주실 분들, 재정으로 섬겨 주실 분들,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실 분들을 붙여 주시고, 저희 카잔은혜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도록 깊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카잔볼가한글학교 여름 강좌, 역사문화캠프, 볼가그라드 트레스디아즈, 카잔은혜교회 청년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아들 세계가 8개월간의 모스크바은혜신학교 1학년 합숙과정을 마치고 전도특공대로 시베리아에서 3개월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시베리아 사역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선민 사역자는 작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5년간은 추적관찰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무리하면 기침을 자주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며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내 세아 역시 작년에 두 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걷는 것이 어려워져서 지난 1년간 홈스쿨을 하며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활을 했습니다. 아직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어야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한 다리가 자주 쥐가 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도록 아뢰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라는 내년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손소미아사역자는 많은 사역들이 많은데 특별히 카잔볼가한글학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한글학교 사역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가운데 생활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김교역 / 김주순 선교사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말씀 앞에 긴장하며 기름 준비하라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욱 소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많은사역들을 담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던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가두거나, 붙잡을 수가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믿고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인 저희 그레이스 장로 교단 총회가 2박 3일 남쪽 지방에서 6/19-21일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등의 폭격은 심해지고 이제는 경보사이렌 소리도 어느덧 귀에 익어서 생활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갈급함이 필요해서 비공식이지만 2025년 총회를 남쪽 지방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희끼리 함께 간증도하고 정보도 나누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위로도 받고 은혜를 회복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역들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위한 은혜가 충만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와 저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오랜 세월 외지로 나와 있다보니 간혹 저의 정체성에 자신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이고 한국에 가면 한국사람이 아닌 듯 어색하니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나의 본향을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을 다시 굳건히 하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도, 또 캄보디아의 성도들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 있는 여행자이며 주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내 피를 나눈 자식의 아버지로 있는 것 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막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에 입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자녀가 모두 한국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내딛은 때와 비슷한 두려움과 설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줘야 되나 생각도 많아지고 그만큼의 능력도 없음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자녀에게

도 동일한 마음이 가며 또 그 만큼 맘을 써야 합니다. 내 자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과 관심이 가는데 영적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가지로 재게 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때론 그들이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 해주는 무언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려는 부분이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온전히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막내 사론이의 대학 입시로 6월 말 한국에 가려합니다. 세 자녀가 다 한국에 있게 되어 교회 학사에 있는 올해 4학년인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에서 나와야 됨에 따라 함께 머물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감사가 있을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찜으란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정작 본인은 먹는 것도 소홀히 하여 저희가 개인적으로 쌀과 라면 등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실히 행하면 꼭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히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면 두 달간은 모든 부분에서 사역자 싸라뿐이 혼자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히 준비하고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중순 이후로 청소년중에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올해 안으로 이것이 잘 자리매김하여서 내년엔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른들이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시간을 새롭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역자의 시간도 맞춰야 하고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 기도 중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영 / 남영미 선교사

김운영 선교사는 미얀마에서 다 인두(Daa Yindu)어의 구약성경을 번역하는 Y선교사의 언어학 자문을 하였습니다. 성경번역을 할 때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제어(key term)를 어떻게 대상으로 번역하느냐가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논쟁 요소를 줄이는 방법은 현지교회 공동체가 만족해하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한 어휘가 기독교의 신의 개념이 잘 표현하는지 입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휘 화용론(Lexical Pragmatics)과 적절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주제어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을 했습니다. 특히 적절성 이론에서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한 추론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

는 성도가 성경 번역자의 어휘 선택 의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부족어에는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또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하느님”과 같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추장보다 더 위에 있는 큰 추장의 의미로 “대 추장”에 해당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성경에서는 소문자 god는 잡신들을 지시하고, 대문자 God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인두어에는 ‘자존적 존재, 창조자, 정의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ngnhaam [ŋham] 응함’을 대문자 “Ngnhaam”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성경번역협회(GBT)의 협력기관인 그



릴락(GRILAC)의 학회준비위원장으로 섬기며, 학회와 학회지에 관련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학회를 준비하고 학회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성경번역 사역에 써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학회 발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열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번역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 언어학적인 관점, 문해사역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학회에서, 학회지로 나눌 예정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표준새번역, 신명기 30장 6절).

국

한OO / 손OO 선교사

국에 따뜻한 봄날이

이번에 제가 있는 마하라슈트라 주 상글리 지역에서 결혼 지참금 문제와 종교 개종 문제로 임신 7개월째인 한 여인이 자살하였습니다. 시댁에서 결혼 지참금을 계속 요구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릴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글리 지역 한 정치인이 전도 활동을 하는 현지 목사나 전도자를 때리고 죽이면 11렉(2천만원 정도) 주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잘르나 지역 구청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가정이 인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도 교회를 물질로 미혹시키고, 폭압적으로 박해하는 마귀의 방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과자를 사 주셨습니다. 그 과자 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교회가 좋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도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방과후학교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예배하며 과자도 나눠주고 달란트 시장도 엽니다. 아이들은 이 기쁨을 말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하나

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인도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짓과 저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손OO 선교사의 사역 - 주일학교/한글학교

방학 전 마지막 수업하는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약간의 울동도 함께 만들어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도 했는데, 조금 미숙했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찬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기뻐했습니다.

본수업 시간엔 1년의 마지막을 “과자파티”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과자봉지들과 각자의 도시락, 인도 만두를 펼쳐 놓고, 젓가락잡기 연습도 해 보고, K-POP도 듣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또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과 편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 이라고 쓴 학생들의 순수함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1년간 새벽잠 설치고 왕복 4시간 걸려서 학교에 오가고, 수업준비에 본수업, 기도회, 교사모임 등 하루종일 머무는 동안 오직 한 가지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만을 기도했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인도의 방학시즌을 맞아 많은 교인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한국에 방문 차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주일학교 메시지 순서가 더 자주 돌아옵니다. 또 적은 인원이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격으로 섬기던 사모님 가정이 델리로 떠나게 되어 그 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시니 그저 아멘하며 충성되어 여기심을 감사로 받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8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한글학교도 개학을 맞습니다. 지 지난 주에 개학식 준비를 위한 교사모임도 가졌고, 슬슬 입학식 행사 준비 및 교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좀더 기도하며 한글학교에 임해야겠다는 마음을 강력히 부어주십니다. 내 힘과 지혜, 경험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지혜,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올 한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

가 됩니다.

부활절에 오신 예수님

구테가온 마을에서 부활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간증도 나누며 마을 주민들과 비리아니 음식으로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살아있듯이 여러분도 주님에 대해서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야외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야외 영화 상영이 새로운지 믿지 않는 주민들도 멀리 뒤에서 “예수”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테가온 마을 협력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교회가 완공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방과후학교도 하며 마을의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OD'S LOVE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자 GOD'S LOVE 집회를 열었습니다. 로컬마를 주민들을 잘르나 도시에 초청하여 예배, 교제, 팀 기도, 간증, 게임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날씨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믿기 힘든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모임을 즐기고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마을 주민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한 방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특히 세족식 시간에 발을 씻기고 기도해 주었을 때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섬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 종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

기OO 선교사

사역 훈련 세미나

3월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사역 훈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믿는 바를 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음 암송과 비전 트립에 이은 훈련이었습니다. 리더와 스태프 포함 30명이 어린이 사역, 전도법, 말씀 묵상 및 통독, 기도회(축귀 사역) 등의 일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생들의 참여, 장소와 운송 수단, 재정이 아름답게 채워짐에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심하기도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학생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역 훈련 세미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고 목요기도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나아오며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가정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일 기도회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교회는 예수 승천일을 기념하여 지키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부활절 이후 성령강림주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종교가 강한 이 땅에서 예수 승천일을 기념하는 것은 매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기념일을 습관과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시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강림주일전까지 10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5/29-6/7).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했는데 계속되는 모임의 시간 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10일 기도회로 모였을 때는 15-20여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매일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35-45명이 모이는 모습을 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감사하였습니다. 좁은 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SOG

예배 공동체 인도네시아는 교단을 옮겨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섬에서 공부하러 이 지역에 온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기에 공부하러 온 도시에서는 굳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고, 모이기를 독려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2023년 1월부터 SOG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소핑몰 빈 공간에서 매주 8시 50-7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주중 양육 공동체, 기도모임, 성경통독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예배 공동체가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 기숙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 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여학생 기숙사를 오픈하고도 입사할 친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어 남학생 기숙사로 바꾸어 시작하였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도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이전 친구들과 인한 경험으로 언제 시작하게 될지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기숙사를 공동체 모임과 기도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가운데 기숙사에서 훈련 받으며 살고 싶다는 여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스태프 숙소를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 기존 남학생 기숙사를 여학생 기숙사로 바꾸어 남/여학생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8일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

며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기숙사 사역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며, 공동체 사역 가운데 봉사하며, 성경 통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을 즐겁게 감당하는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하며 섬기며 학생들의 믿음이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통독

공동체 학생들, 몇몇 후원 아동 학생들과 매일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매일 저녁 현지시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간 온라인으로 30-40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6월 29일 기준 89일째). 말씀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지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 모임

월요일은 현지사역자, 화요일은 한국 선생님들, 목요일은 공동체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 모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역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S 지역 단기 선교 예정 (8월 18-23일)

4명의 사역자와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과 함께 다른 섬인 스브 두지역에서 어린이 사역 3회, 청소년 사역 3회, 금요 예배, 정탐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여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현지 사역자와 그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썸으란이 직장문제로 주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예배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일들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8. 선교사의 한국방문 중 스나오 은혜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 I국 한OO / 손OO 선교사

1. 분열된 I국 사회가 하루 속히 안정되고, 박해 속에서 인도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2.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3. 외부 한국어 강의실이 열리고, 학생들을 주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4.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교육환경 개선, 교사 양성, 7월 비하르 인카운터 등)이 채워지도록
5.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교회당과 방과후학교가 건축되도록
6. 델리에서 진행할 GMI 신학교 강의(7/21~7/24)와 훈련생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7.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분 보안, 새 비자 발급을 위해서



■ I국 기OO 선교사

1. SOG(Serve Our Generation) 사역을 위해
대학생 공동체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학생들이 예배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매일 저녁 함께하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공동체,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예비될 수 있도록
2. 장학 사역을 위하여
학생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학생들과 가족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다른 믿음을 가진 학생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1인 매월 3만원)
3. 교육 사역을 위하여
학생들이 성실하고 기쁘게 학업에 임하고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통로가 되도록
4. I국 만다르 종족군을 위하여
5. ㅅ ㅂ 단기 선교 (8/18-8/23) 를 위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행하고 그 땅의 문화를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도록
오고 가는 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러시아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1. 러우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2. 카잔은혜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3. 초청되어 오는 청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TD까지 잘 연결되도록
4. 교회 건축가운데 돕는 손길이 넘치도록
5. 구소련GMI 10,000개교회 개척과 카잔은혜교회의 1,000개 교회개척을 위해
6. 주선민선교사의 갑상선암치료와 막내 세아의 다리가 잘 치료되도록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1. 까미노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호텔로 사무디 목사가 사랑과 영성으로 목회 하도록, 까렌사모가 순산하도록 (결혼한 지 8년여만에 임신하여 7월 중하순 출산예정)
2. 멕시코의 개신교 교회들과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들과 제직들이 자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력으로 복음전파에 힘쓰도록 (7대 초대교회들처럼)
3.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멕시코 신학교연맹 신학교들에서 강의하게 되는, 신구약 성경과목들과 성경 히브리어와 성경 헬라어를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4. 저희 내외가 건강하여 멕시코의 풍토병들(멕시코 독감, 홍역, Dengue, 고산병, 석회석 식수에 의한 각종 질환)을 잘 이기며, 교통안전과 치안 안전을 위해서
5. 까미노신학교에 비치한 책들(약 2,100권)을 현지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잘 활용하여 영력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B국 강OO / 현OO 선교사

1. 4개 지역의 한센환우촌에 모든 한센환우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지역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아주 장거리에 교회가 위치함)
2. 노숙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적인 음식과 임시 거주 지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3. 장기간 학교의 회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학교에 갈수 없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4. 직원과 각지역 대표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5. 영과 육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파푸아뉴기니 김운영 / 남영미 선교사

1.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마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성경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도록, 치안이 안정되어 평화가 강 같이 흐르도록,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2. 미얀마의 Y선교사가 구약 번역을 끝까지 잘 번역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신실한 현지인 성경번역 조력자를 보내주시도록
3. 김운영 선교사와 파푸아뉴기니 SIL 선교사들과 소통이 잘 되어 언어학 자문위원 과정이 순적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언어학 자문이 필요한 성경번역 선교사들과 동역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양질의 성경이 번역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남영미 선교사의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건강한 체질로 바꿔주셔서 선교지에서 섬기는 기쁨, 사역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5. 말씀이신 성령님, 아들을 깊이 만나 주셔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만남과 장래를 축복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도록

선교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 5월 기준)

러시아 및 CIS [권역담당: 장영호 장로]

러시아 쉐넬페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볼고그라드: 조익현(임문자), 첼랴빈스크: 이정식, 사할린: 천병기(사라), 김성웅(지수), 날차: 주성길(손정순), 블라디보스토크: 서금순, 이르쿠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하바롭스크: 정소남(미선),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로스토브: 최성목(혜옥),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겸임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이정식

동북 아시아 [권역담당: 원용경 장로]

한국: 정태호(정은주), 고은희, 김영진, 김에스터, 이기쁨(정은주), 최광(나미연), 남경애, 황영수(정경련), 김광문(이용숙)
중국: 김00(송00), 장00(00), 김00(00), 박00(00), 이00(00), 조00(윤00), 정00, 장00(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한(김정희), 박두희(이선희)

동남 아시아 [권역담당: 류형수 장로]

베트남: 강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임진섭(양윤희), 박경덕(신미선)
라오스: 신00(00), 천00(이00), 유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박효순(이영희)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유인숙 **미얀마**: 한00(김00), 강00(이00), 박00(염00), 유00(킨00), 전00(김00), 김00(00)

서남 아시아 [권역담당: 최운호 장로]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김00,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김00(김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박00(김00), 강00(현00)

포어권 [권역담당: 이재근 장로]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 **모잠비크**: 하선(남성만)겸임

아프리카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강완식(조영순)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이스라엘: 김00(아00), 양00(00), 장00(최00), 김00, 이00(00), 최00(아00), 강00(R00), 김00(조00), 지00, Shin00 **이라크**: 김00, 김00(00), 한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중남미 [권역담당: 장준영 장로]

아르헨티나: 김영선(박혜순), 유성두(강지애), 스텔라김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 **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겸임 **멕시코**: 이종식,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김봉년(김미란)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유럽 [권역담당: 권역석 장로]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터키**: 김00(00), 공00(박00), 김00(00) 최00(이00), 전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권역담당: 이상훈 장로]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 백원일, 홍종철, 김득원,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환 **캐나다**: 함상훈(명숙)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업

파라과이 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Cuba Freedom 3기 및 신학교 졸업식 (8/17-8/22)**
 S/L: 송중호 목사
 문의: 민건호 집사 (714-471-0776)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중호 목사
 력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운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력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